“본말사·신행단체도 환경조직 구성을”

불교사회연구소 10월 28일 세미나
유정길, 교구별 환경위 설립 제안
“탈성장 전환사회 나가야” 주장도
원철 스님 “환경보살로 실천행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환경위원회와 함께 10월 28일 ‘기후변화와 불교실천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와 함께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국제시민사회 및 한국사회 대응 현황’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을,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기후위기 극복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유와 전통’을,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의 실천과 전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불교실천 과제를 제안하며 “25교구 본사 중 교구본사별로 7개 정도의 기후환경실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단체들도 환경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 유 소장은 “본말사 주지와 사무장,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적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년간의 활동을 위해 앞으로 1년간의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차원의 기후행동 특별지원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유 소장은 “‘기후환경실천위원회’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지원팀은 전문위원들과 이를 전담할 실무팀으로 구성해 홍보물을 만들고 정기적인 캠페인을 조직, 교직지원과 조직지원, 지역별로 환경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한국사회 종교계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이기심에 기초해 욕망을 부추기고 극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난 문제”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인간들뿐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과도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널리 확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도화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이제는 ‘탈성장 전환사회’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IMF 시기의 2배에 달하는 감축이 매년 전년 대비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조사가 있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환은 빨리, 생활은 더욱 활력 있게 짜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행동을 통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탈성장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경제성장 또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면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다”며 “한국 시민사회의 기후운동은 사회적 가치를 돈이나 경제가 아닌 돌봄과 나눔의 가치, 생태적 가치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시민 대다수가 경제성장 보다 돌봄, 나눔, 생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정치, 경제의 다양한 행위자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지구와 우리의 생존이 결코 둘이 아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 환경보살로 살아가야 한다”며 “원력을 새로이 하고 다방면에서 실천행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김광삼 본지 초대 사장, 불교언론인상 수상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발표… 11월 24일 시상식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초대 사장<사진>이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0월 28일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으로는 KBS1TV에서 방영한 ‘다큐On-마음을 잇다, 템플스테이’가 이름을 올렸다.

불교 언론계에서 남다른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불교언론인상에는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초대 사장이 선정됐다.

1967년 매일경제신문 정치경제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김 초대 사장은 1994년 창간 발행인으로서 현대불교신문사를 창간했다. 이후 12년 간 사장으로 재직하며 불교계 최초의 포털사이트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개설해 불교의 사이버 포교를 이끌었다.

1996년에는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으며, 1998년에는 사회의 그늘진 교도소와 군법당 등에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도 적극 펼쳤다. 1999년 ‘한국불교 이것만은 고칩시다’란 캠페인을 기사와 함께 펼쳐 한국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구산선문을 찾아서’란 불자들을 위한 테마기행을 기획해 당시 문광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전국순회 ‘간화선 대법회’를 펼쳤으며, 2002년에는 불교계 첫 2섹션 지면을 선보여 불교계 신문 언론을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송 부문 TV최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의 ‘스님의 펫밀리’,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라디오 ‘이효주의 싱싱라디오’, 우수상에는 G1(강원민영방송)의 ‘모두를 홀린 얼굴’이 각각 선정됐다.

신문 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선암사, 잃어버린 60년…불법(佛法)에 대처 없다’가 우수상에는 법보신문의 ‘국·시립합창단 교묘한 종교편향 고발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뽑혔다.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TV의 ‘불교왕’, 우수상에는 BBS 닥잠의 ‘힐링 ASMR <리얼사운드맛집, 닥잠 Dr.ZAM>’가 선정됐다.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조계종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문화 확산 축구로 희망 슛 쏘다

FC생명나눔, 친선 축구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조계종 대종사)는 10월 23일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에코랜드 축구장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의 슛’을 슬로건으로 김흥국 홍보대사팀과 FC생명나눔이 친선 축구경기를 펼쳤다.

일면 스님은 “김흥국 홍보대사 축구팀과 FC생명나눔 축구팀의 경기를 통해 생명나눔에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가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국가 미얀마 코로나 극복 기원합니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대사관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1월 이어 두 번째 마스크 나눔
민주화 갈등 이중고에 힘 모아


국제불교연합은 10월 27일 서울 미얀마 대사관에서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민주화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를 돕기 위해 불자들이 나섰다.

국제불교연합(이사장 재원)은 10월 27일 서울 미얀마대사관에서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 불교대학 등에 K방역세트로 어린이 및 성인용 마스크 총 10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K-방역세트는 불자기업인 에스제이파워(회장 신항철)를 비롯해 대성울트라소닉, THL네트웍스, 참이누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에스제이파워에서 생산한 미화 5만 달러, 한화 5000만원 상당의 싱그라미 마스크다. 이밖에 하남 청운사, 안성 연등사, 제주 대원사 등도 참여했다.

전달식에는 국제불교연합 이사장 재원 스님과 제주 선운정사 회주 현오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을 비롯해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회장,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딴진 미얀마 대사 등 관계자들이 국제불교연합의 기부물품을 받았다.

재원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바간 불탑 복구 등 미얀마를 도와왔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미얀마 상황이 안정화되어 미얀마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는 “미얀마 불자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 한국불교계와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고자 한다”며 “미얀마는 수개월 전보다 많이 안정화됐다. 백신도 70%가까이 접종하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분들도 현재 교류를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오 스님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불교연합은 미얀마 방역물품 지원에 이어 2022년 1월까지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 불교국가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2021 세계일화 OIBFF 지역상영회 개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11월 13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상영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대학원장 이원덕)과 각 지역 교구신도회에서 주관하는 지역상영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6개 주요 도시(△강릉△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네 편의 불교영화를 선보인다.

지역상영회에서 만나게 될 영화는 지난 8월 영화제에서 우수작으로 평가 받은 작품들로 개막작 ‘컵’의 감독인 켄체 노부의 작품 ‘나그네와 마술사’와 부탄의 한 초임교사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교실안의 야크’, 그리고 시청각적인 요소로 명상의 세계를 보이며 호평 받은 미국 영화 ‘삼사라’, 마지막으로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이라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다. 해당 영화는 모두 무료 관람이며, 오는 11월1일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www.oibff.com)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는 지난 8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개국 62편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본 영화제의 공동조직위원장인 주윤식 이사장은 “지난 여름, 불교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의 감동과 분위기를 지역의 불자들과도 함께하고 싶어 지역상영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또, 지역상영회를 통해 권역별 교구를 중심으로 지역불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 인스타그램 이벤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우리지역_힐링드림

접수 방법
1.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가보고 싶은 사찰 찾기
2.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여행 코스 계획 후 카드뉴스 제작 6장 이상(표지 – 여행 코스 – 관광지 소개 3장 – 마무리)
3. 참가자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업로드(계정은 공개 상태로 설정)
   필수 해시태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힐링템플드림 @templestay 계정 태그 필수
4. 주소창에서 **템플스테이.COM** 접속 후 **참가신청서 등록**하면 참여 완료

진행 일정
접수 기간: 2021년 8월 2일(월) ~ 23일(월) AM 11:00
결과 발표: 2021년 9월 중 개별 안내(시상식 진행 예정)

유의사항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 활용해 콘텐츠 제작.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이거나 표절 작품은 수상할 수 없음.

시상 내용

1등	1명	상금 5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2등	2명	상금 3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3등	3명	상금 1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인기상	4명	모바일 기프티콘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입 선	30명	모바일 기프티콘 + 본디나 기념품

* 본디나 기념품은 수상자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상품: 소정의 이벤트 기념품
* 모바일 기프티콘: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문의처
TEL: 070-4366-7013
E-MAIL: jin@eggpr.co.kr

참가신청서 등록 바로가기